

BERLIN 베를린

ENJOYING A CITY OF ART WITH APPS

앱으로 즐기는 아트시티

베를린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아트시티로 불린다.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아티스트와 컬렉터, 예술학도, 여행자들이 베를린을 찾는다. 이들은 더 이상 두꺼운 가이드북을 펼쳐 들지 않는다. 간단하게 아이폰으로 '아이아웃', 혹은 '슬릭 아트 가이드 베를린'을 검색한다. 이제 베를린 아트를 만끽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아트 가이드 어플리케이션은 필수품이 되었다. 400여 개에 이르는 갤러리와 전시 소식, 오프닝 파티 소식들을 재빨리 접할 수 있다. '아이아웃'은 주변의 전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전시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어 편리하다. '슬릭 아트 가이드 베를린'은 베를린에서 가장 앞서가는 아트 & 패션 매거진 (슬릭)이 추천하는 최고 도전적인 갤러리의 선택권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포기된 바'와 같이 베를린 아티스트들의 열정적인 프로젝트를 볼 수 있는 숨은 장소들도 공개한다. 시티가이드도 덩어리는 점에서 아주 탐나는 어플이다.

For a famous city like Berlin, attracting artists, collectors, art students and tourists from around the world is not too difficult a task. With one of the world's leading art scenes, you would think galleries would need to be adept at marketing, ensuring maximum exposure in guides and tourist brochures. Perhaps not for much longer. Visitors can now simply check out EYEOUT or the sleek Art Guide Berlin, art guide apps that today are a necessity for those who want to fully enjoy all of the city's art. They give speedy access to information on more than 400 galleries, as well as news updates on exhibitions and opening parties. EYEOUT is an app created by Jan Winkelmann, a gallerist and curator. Then there's the sleek Art Guide Berlin, which grants access to a selection of galleries recommended by Berlin's leading art and fashion magazine. In addition, the guide provides information on some hidden places, such as Forgotten Bar, where the passionate projects of Berlin artists are available. It also comes complete with a city guide, making it a doubly useful app. by 서다희 **Soo Da-hoo**



PAUL SNOWDEN AND THE YOUTH OF BERLIN 폴스노우덴과 만난 젊음의 흔적



한적할 것 같은 주말 새벽의 지하철이 사람들로 붐빈다. 하나같이 한 손에 맥주병을 들고 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일렉트로닉 파티가 열리는 클럽으로 향하는 베를린의 젊은이들이다. 베를린은 끊임없는 파티문화 속에서 다양한 유머와 감각적인 아트가 탄생하는 곳이다. 그 중 베를린의 파티문화를 대표하는 아트는 WASTED GERMAN YOUTH와 'WASTED BERLIN YOUTH'만 술로건이다. 찰지만 강한 문구와 힘있는 타이포그래피에는 파티에 젖어 시간을 낭비하는 독일 젊은이들의 삶이 담겨 있다. 아티스트 겸 디자이너인 폴 스노우덴은 1999년 이 술로건을 만들고 2005년부터 티셔츠와 티셔츠 작업을 시작했다. 현재 베를린은 그의 아트 흔적으로 가득 차 있다. 티셔츠로 도배된 벽, 화장실, 자동차 및 물건들에서 그를 만날 수 있다. 어느새 흑백 디자인의 'WASTED GERMAN YOUTH' 티셔츠는 베를린 파티의 필수품이 되었다. 그리고 'WASTED GERMAN YOUTH'의 뒤를 잇는 많은 술로건들이 그를 통해 나왔다. 단어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폴 스노우덴의 타이포그래피는 날카로우면서 흥미롭게 베를린 젊은이들의 진짜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다. 그의 술로건이아말로 베를린의 현재이자 젊은이들의 삶이다.

You'd think a city's subway would quieten down at dawn during weekends. But in Berlin, the opposite is true where crowds of young people, beer bottles in hand, swarm at first light. An odd sight they may be, but these young Berliners frequent clubs where electronic parties are held over weekends. Berlin is a city where a rich sense of humor and diverse art is evident in party after party. Some say Berlin has a unique feel absent beyond the German capital. For a synopsis of this subculture, consider these two slogans: WASTED GERMAN YOUTH and WASTED BERLIN YOUTH. Short, blunt and written in powerful typography, the slogans encapsulate the hedonistic lifestyle of the German youths who like wasting their time at marathon parties. The artist and designer Paul Snowden created the slogans in 1999 before turning them into stickers and T-shirts. Today, his work is all over Berlin. Walls, bathrooms, cars and other random objects can be seen bearing his words. Black-and-white WASTED GERMAN YOUTH T-shirts have become a must-have on the Berlin party scene. Many other slogans have followed suit. The words may be different but the message remains the same: They state the weekend values of Berlin's youth through shrewd observation and cool expressions. Their intent to party is plain to see. by 서재연 **Jay**

PARIS 파리

PARIS NEW COOKING TEACHER

요리 프로그램은 열혈방송 중

식도락으로 유명한 프랑스인들은 이제 더 이상 좋은 음식을 찾아 식당에 가지 않는다.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식재료가 가득한 재래시장으로 간다.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들이 난무하면서 직접 음식을 만드는 것이다. 프랑스인들의 요리 선생님은 TV프로그램이다. 최근 프랑스 주요 방송 3사는 프라이 타임에 요리 프로그램을 배치했다. 목요일 오후에는 (마스터 셰프)와 (거의 완벽한 저녁)이, 가족이 모이는 주말 저녁에는 (가족들의 식사)가 방영된다. (마스터 셰프)는 아마추어들이 요리 경합을 벌이는 프로그램이다. 심사단의 코멘트를 통해 시청자들은 각종 요리법이나 재료를 다루는 방법 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거의 완벽한 저녁)에선 5~6명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이 각자의 장기요리를 만든다. 매회 방송이 끝날 때, 다른 참가자들의 요리를品嚐하면서 참가자들 스스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음식을 비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진짜 매력이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하는 것이 유행이다. 일명, '(거의 완벽한 저녁) 따라 하기 그룹'이라는 모임이 그것이다. 친구들끼리 모여 요리하고品嚐하는 '요리놀이'가 주말의 일과다. (가족들의 식사)는 가족 단위로 요리 실력을 겨룬다. 조만간 '(가족들의 식사) 따라 하기 그룹'도 등장할 듯하다.



Parisians are well known for their love of fine dining but recently more have been opting for home cooking. The trend has seen residents of the French capital scouring local markets for fresh produce. Though although lovers of fine fare, Parisians are not so familiar with the techniques and recipes that make up their national cuisine. This dearth of knowledge has prompted a demand for TV chefs. Recently, three major French TV channels have slotted cooking programs into their primetime schedules. Hit shows *Master Chef* and *Un Diner Presque Parfait* go out on Thursday afternoons. *Master Chef* is a reality show for amateur chefs, in which a group of judges scrutinizes each dish. As the judges comment on the food, viewers learn how they were made. On *Un Diner Presque Parfait*, participants cook their favorites. At the end of each show, they evaluate each other's efforts and select a winner. The strength of the program comes from its ability to teach amateur chefs and viewers how to properly critique cuisine. The shows have also spawned weekend cooking contests where people can evaluate the skills of friends and neighbors. *Repas de Familles*, meanwhile, focuses on food for families. Pretty soon, Paris may see in-house cook-offs. The frying pans of that great city will soon be sizzling with passionate culinary competition. by 최현정 **Choi Hyun-jung**